

서 평

Paul Kennedy,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 London : G. Allen & Unwin, 1980, 1988(5판)

정 상 수

20세기 후반의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는 우리에게 1914년이전의 영국과 독일의 긴장관계를 주목하게 하였고, 1970년대의 냉전체제라는 정치·역사적 상황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두 강대국의 경쟁관계를 다시금 커다란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전의 연구업적인 사모아Samoa에서의 영국과 독일의 대립과 독일 제국주의의 특성을 연구한 경험에 입각해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50여년간에 걸친 시기를 심도있게 발전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서 저자는 1930년대 이후 역사학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따른 연구를 이 책과 함께 마무리하려 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독관계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주로 독일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독일측 외교문서 간행사료(Groß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가 영국측 간행사료(British Document on Origin of the War)에 비해서 양과 질에 있어서 방대하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독일의 역사학자 마이네케Meinecke는 1898/1901년의 영·독협상 실패를 독일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서 영국측 동맹안을 거부한 데서 야기되었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리터Ritter는 영국측에서도 동맹안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파악했다(Friedrich Meinecke, Geschichte des deutsch-englischen Bündnisproblems, München 1927; Gerhard Ritter, Die Legende von der verschmähten englischen Freundschaft 1898/1901, Freiburg 1929).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영·독관계를 파악한 연구 업적으로는 W. Langer의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2, New York 1935” 가 뛰어나다. 1960년대에 영국 외교문서의 50년 공개금지기간이 종료되면서 영국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G. Monger, The End of Isolation, London 1963; J. A. S. Grenville, Lord Salisbury and Foreign Policy, London 1964). 이들은 주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국 외교정책의 정당성과 독일 제국주의의 공격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벨러 H.-U. Wehler를 중심으로 한 독일에서의 사회사의

발전은 이 분야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고, 전반적으로 1900년 경의 독일 함대정책과 외교정책의 공격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케네디는 1970년대의 지나친 사회사적 연구 방법론에 의한 내정우위 *Primat der Innenpolitik*에 입각한 역사서술에 반대하면서 내정과 외정의 균형된 상태에서의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독관계를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xi쪽). 저자는 1970년대의 사회적 제국주의 이론에 따르는 비스마르크 Bismarck의 1880년대 식민정책 시도가 경제불황의 타개와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간접적 탄압이라는 벨러의 주장을 반박한다. 대내적으로 비스마르크의 적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였고, 후자가 대외적으로 영국 자유주의자들과 결합하는 것에 비스마르크는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의 대두에 반대해서 반영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정책을 시도하였다는 저자의 주장은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된다(170쪽 이하).

저자는 사실과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41개의 영국 문서보관소와 18개의 독일 문서보관소의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양국의 문서는 비교적 균형잡힌 양상으로 인용되었다. 외형상 나타난 숫자에 있어서 영국 문서보관소의 우위는 독일과 영국간의 문서보관의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뿐이다. 국제관계 속에서 보다 정확한 당시의 영국과 독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문서가 이용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프랑스의 간행사료(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와 문서보관소들(외교문서보관소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Paris, Archives et Documentation*; 국립문서보관소 *Archives Nationales, Paris*; 육군역사국 *Service historique de l'Armée de terre, Vincennes*; 해군역사국 *Service historique de la Marine, Vincennes*)에 있는 문서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영·독관계의 악화가 영·불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당시의 영·불관계와 독·불관계에 대한 사료에 입각한 새로운 연구업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독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저자는 1880년과 1906년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1860년에서 1880년까지 20년간의 시기는 문화적, 종교적, 왕조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암도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양국간에는 결정적인 이질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념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는 두드러졌으며, 지정학적 입장에서도 두 나라는 상이한 측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대립의 가능성을 비스마르크와 디즈렐리 Disraeli · 솔즈베리 *Salisbury*에 의해서 추구된 현실정책 *Realpolitik*이라는 측면에서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비스마르크에 의한 프랑스의 고립정책과 디즈렐리 · 솔즈베리에 의한 러시아 남하 정책의 저자는 상호 교환적으로 서로에게 수용될 수가 있었다. 특히 영국측에서의 이집트(수에즈)의 확보는 프랑스와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

간의 이해의 일치가 베를린회의였다. 저자는 1879년의 독·오동맹의 결성을 영국·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에서 독일이 영국·오스트리아를 선택했다는 통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케네디는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 나아가서는 러시아라는 보수적인 동유럽 국가와 연결을 도모했다는 점에 1879년의 의의를 두고 있다(34쪽 이하; 228쪽). 그러나 1879년의 보호관세정책은 분명 러시아에게 불리한 조처였고, 1878년 베를린회의에서 독·러관계의 냉각이 1879년에 더욱 심화되었음을 저자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반독주의자이자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도덕정치Moralpolitik를 구현했던 글레드스턴 Gladstone의 1880년 영국 수상으로의 복귀는 비스마르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1885년까지 글레드스턴의 집권기간 중에 이미 영·불협상의 가능성성이 나타나게 되고 영·독관계는, 특히 이념적 측면에서 계속 악화된다. 저자는 영·독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위범주에서 영국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80년을 영·독관계의 악화로 보는 입장은 이전까지 1878년 베를린회의를 통해서 비스마르크가 1870년이래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독일을 주시하고 있었던 영국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학계의 통설에 반대된다. 단지 2년 만에 다시 영·독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단 말인가? 또한 1880년 이후 비스마르크가 자신의 동맹체계의 주요 골자인 삼제동맹(1881년)과 삼국동맹(1882년)을 성립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영국 역시 지중해협정(1887년)을 통해서 비스마르크의 동맹체계에 간접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1880년 글레드스턴의 재집권을 영·독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1880년과 1906년 사이의 양국 관계의 전환점을 1890년과 1897년으로 파악한 것은 독일 정책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저자는 1905/06년의 제1차 모르코 위기와 알제시라스Algeciras회담에서의 독일·오스트리아의 외교적 고립을 커다란 전환점으로 파악함으로서 전통적 외교사의 연구업적을 따르고 있음과 동시에 1880년을 영국 정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워서 영·독관계의 1차 대전환점으로 파악한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해서, 1905/06년의 의의를 영국 자유당이 다시 집권하게 된 것에 입각해서 영·독관계의 2차 대전환점으로 파악한 것은 연구방법과 관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제시한다(288쪽).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13장(1897년-1902년)과 14장(1902년-1906년)이다. 이 두 부분에서 저자는 영·독관계의 치명적 악화를 발견한다. 저자는 영·독관계의 악화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독일측에 있고 영국에 대항한 합대건설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스테인버그Steinberg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Jonathan Steinberg, Yesterday's Deterrent, London 1965). 나아가서 독일은 1897년부터 영국과의 협상을 버리고 합대건설에 주력하게 되고 1898/1901년의 영국측의 동맹체의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자국의 제국주의 경향을 대변

하는 벨로Bülow와 챔버린Chamberlain에 의한 대립의 시기로 파악한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는 데 주로 독일 정책의 과격성을 나열함으로써 영국측에 의한 독일의 이해관계의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235쪽 이하). 그러나 세기의 전환기에 독일과 영국의 외교정책은 벨로-홀슈타인Holstein-오일렌부르크Eulenburg의 삼두마차와 솔즈베리-렌스던Lansdowne-챔버린의 집단 지도체제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홀슈타인과 렌스던에 의해 추진된 영·러대립에서 독일의 중립정책과 독·불관계에서의 영국의 중립정책에 주목하여야 했을 것이다.

1904/1905년의 동아시아와 모르코에서의 이중 위기는 독일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듯하였으나, 영국측에서의 러·불동맹과 삼국동맹사이에서의 세력균형의 회복이라는 입장에서 프랑스 측에 유리하게 외교정책을 전개시킬 수밖에 없었고, 독일의 알제시라스에서의 패배는 자신이 초래한 결과로 서술된다.

1880년에서 1906년의 시기를 저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승하는 독일과 하락하는 영국의 대립관계로 파악하고 (306쪽 이하), 이는 결국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1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은 당시의 현상태(status quo)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반면 독일은 [……] 그것(status quo)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470쪽). 즉 기존의 세계강대국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독일의 충동력이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영국의 잘못된 입장에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충분히 강대국 내지는 세계대국의 면모를 갖춘 독일의 지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영국의 오만함이라는 잘못을 저자는 은폐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이전까지의 연구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관련된 발칸에서 찾으려 했던 반면에 저자가 당시 가장 발전된 나라인 영국과 독일의 대립관계 속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그 관점의 새로움과 또한 그에 따르는 실증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자의 친영적 성향이 세계대전 원인규명을 위한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906년 이후 그레이Grey와 니콜슨Nicolson에 의한 독일에 적대적인 영국 정치집단이 계속적으로 독일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한 것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결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880년대 아래의 두 나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악화일로에 놓여 있었다는 직선적 역사 서술방식도 수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영·독의 관계가 화해와 타협없이 계속적으로 적대감이 상승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저자가 양국간의 화해와 긴장 해소보다는 대립관계의 고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역사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도와시한 듯하다.

외정의 분야에서는 이전에 인용되지 않은 많은 미간행사료에 입각한 연구의 참신성을 보여 주지만, 내정의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새로운 관점이나 사료의 발견이 이루어

지지 못한 채 주로 기존의 통계자료와 연구업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신문연구소Institut für Zeitungsforschung와 크룹 문서보관소Historische Archiv Friedrich Krupp GmbH의 자료를 독일 여론형성과 산업자본가의 역할 연구에 활용했다면 충분히 보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여러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미간행사료에 입각한 실증적인 연구업적과 비스마르크와 글레드스턴을 확실한 대립관계에서 파악함으로써 1880년이 영·독관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새로운 시도는 칭찬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즉 이 책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완전히 섭렵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사료와 관점을 도입한 모범적인 학술서이다.

정상수,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Tel : 880-8506